

## 한국 교사들의 성역할인지, 성교육요구 및 성교육 의식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김 영 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 규범 그리고 인간성의 본성은 물론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에 틀림이 없으나 “청소년은 성에 대하여 모르는게 약이므로 성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모르는게 약이라는 식의 보수적인 성문화 의식을 강요하는 일부 기성사회계층이 있는 반면에, 1996년 제4회 세계여성대회 실무위원회에서는 “청소년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는 성적 주체자”로 인정하여 부모와 교사는 성에 대한 교육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행동강령까지 선포하기에 이르렀다(이명화, 1997 ; 김기환, 1998 ; 이광자, 1996).

우리 사회에는 성에 관하여 남녀 이중구조(double standards)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대중매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을 둔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혼

전 성경험, 10대 임신모, 교내출산, 학생매춘, 술집아르바이트, 청소년강간범 등과 같은 청소년성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으며 실제로 작년 한해 동안에는 성폭행에 의한 여중생의 교실내 출산이 몇 케이스나 있었으며 지난 5년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중 미혼모 자녀가 83.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 80.8%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성범죄발생 비율이 세계 3위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조선일보, 96. 12. 15 ; 손덕수, 1997).

일본의 경우, 자국의 성문화발달 속도와 자녀의 신체적 발달단계에 알맞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때가 1965년 경이었다. 그 당시 일부 계층에서는 성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를 금기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1990년에는 성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회가 열리는 등 발달단계별로 설정된 성교육의 목표아래 실질적인 성교육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기타자와교표; 北尺杏子, 1997).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소중한 생명’을, 중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성’을,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와 성’을 주개념으로 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초까지는 10대 미혼모가 많아서 사회적 고민이었으나 1975년부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터 임신중절이 자유화되는 동시에 피임약이 무료로 배포되고 시교육위원회에서 10대를 위한 피임상담소 운영에 힘쓴 결과 1979년에는 미혼모 발생율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성교육피해상담소, 1996).

한국에서도 성인을 위한 성교육은 196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구증가를 억제하려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 가족계획협회 차원에서 콘돔, 피임약, 정관수술 및 난관결찰술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뤘다. 한편 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부모의 가치관이나 교육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세 전후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학생을 위한 성교육은 학교행정가, 학부모 및 교사들간의 필요성 인식과 교육적 요구도에 따라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다를 수 있다. 1983년 문교부의 교사용 성교육지도 자료에 따르면 학령전기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10단계로 나누어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누가 성교육을 실시하며 어느 수준까지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성교육효과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권이중, 1996).

오늘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분야에서 거론은 되고 있으나 학술적인 절차와 검정을 거친 연구결과나 시청각 교재는 드물며 특히 간호학계에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용 성교육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가르친다면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권에 적합한 발달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폭력화하여 각종 청소년·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상업주의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양호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남녀성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 또한 성교육실시와 관련된 의식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성교육제공자로서의 교육적 수준을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양호교사와 일반교사의 남녀 성역할 인지도, 성교육요구도와 성교육실시와 관련된 의식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조사한다.
- 2) 양호교사의 일반교사의 성역할 인지도를 확인한다.
- 3) 양호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교과내용에 관한 요구도를 확인한다.
- 4) 양호교사와 일반교사의 성교육 의식정도와 성폭력, 자위행위에 관한 의식수준을 확인한다.
- 5) 학교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양호교사와 일반교사의 의견을 조사한다.

## 3. 용어의 정의

**성역할인지도** : 우리 문화가 기대하고 있는 남녀성별 특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직무, 태도 및 능력영역에서 남성우위의 성 차별주의를 의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우위의 성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성교육요구도** : 성교육 교과내용중 교사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성교육 의식정도** : 성교육 제공자로서의 의식상태 또는 성문화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말다.

## II. 문헌 고찰

오늘날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성의 해방, 여성해방운동, 가족구조 및 크기의 변화 등은 지금까지 엄격하게 지켜온 전통적 성역할의 규범을 약화시켰고 가정과 사회에서의 성역할 변화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이란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남성과 여성을 구별짓는 ‘성별로서의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적 차원의 성개념이다. 둘째로 '행위나 행동으로서의 성'으로 성교를 지칭한다. 셋째로는 감정, 의지, 행동, 학습, 문화가 포함된 보다 포괄적이고도 광의의 개념 즉 섹슈얼리티(sexuality)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신체를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남성·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촉진시키는 복합적인 개념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생물학적, 사회심리적, 행동적, 문화적차원에다 성기능장애, 성전환수술과 같은 임상적 차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전용호, 1996). 구성에(1998)에 의하면 상업주의가 이끌어 가는 성의 개념은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성문화로 연결되어 어린 소녀들을 '어린 닭'으로 묘사하는 등 어른과 청소년 모두를 인간이하의 존재로 타락시켜 놓았다고 보고 앞으로의 성 개념은 행위중심에서 인격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성의 경험들을 냉정하게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심리 학자들은 현대와 같은 생활패턴 속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Bem, 1975 ; 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 1997). 양성성이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융통성있게 수행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고 그로인해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춘기의 성을 이해하는 일 연구는 치료사,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춘기 성충동의 압도적인 강도는 리비도나 생리현상이 아닌 다른 요소 즉 사회적 욕구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을 개진하였다(Hajcak, Garwood, 1988).

한국의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생각보다는 성행위를 못하도록 막거나 성기교육이나 순결교육을 권장하고 있다(최수일, 1996 ; 이철형, 1998). 이에 비해 유럽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십대 임신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대처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혼전 성경험율은 비슷하지만 십대 미혼모 발생률이 현저히 적다고 보고되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3 ; 102-103).

미국 뉴욕대학의 D. 카루다웃 교수는 성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보, 전달, 의사결정 및 가치관과 태도라고 했는데 '정보' 개념은 가르치는 즉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단편적인 지식전달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가"를 미리 알아낸 뒤에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및 보건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달'은 교사측에서 학생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기술의 습득이 매우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 서로간의 대화도 자유로이 주고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개념은 학생이 자신의 성가치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때 교사가 어떠한 조언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도울 것인가를 결정해주며 '가치관과 태도'는 교사도 학생도 먼저 자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발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성폭력피해상담소, 1996).

인간은 "왜 성에 대해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자기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이고 둘째, 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성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셋째, 성에 관한 올바른 용어 사용을 도우므로써 성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을 도울 수 있고 넷째, 성폭력이나 임신따위 문제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문제가 생길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다섯째, 성적행동에 대하여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부산여성사회교육원, 1997).

한국의 문교부교사용 성교육지도자료(1983)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에서 "사춘기의 신체 및 정서발달, 2차성징, 가족과 나"를, 2학년에서 "성적관심과 충동(사춘기성문제, 자위행위 및 성적승화), 이성의식(참다운 우정, 이성교제), 남녀의 정결(순결, 정결의 사회윤리성, 절제와 경계)"를, 3학년에서 "성역할의 성숙(성역할의 의미, 을

바른 성지식 및 태도), 새로운 남녀관계(성차의 의미, 평등성, 전통적 남녀관계와 현대적 남녀관계, 남녀역할차와 협력, 모성과 인간평화), 인간과 자연의 신비(생식과 번식의 신비, 인류의 번영,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주된 성교육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중고생을 위한 성교육 교과서인 “성과 행복”이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던 기존 성교육에서 벗어나 피임법까지 소개하였기 때문에 일부 교육관계자들에게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이는 기성세대의 반응일 뿐 학생들은 “재미없고 다 아는 사실”이라고 시들해 하고 있다(주간조선, 1998).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알고자 하는 성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숨어서 비밀리에 그릇된 정보를 주고 받게되는데 그 결과는 잘못된 성의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권이중(1996)에 의하면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청소년들은 오히려 첫성경험을 뒤로 미루며 성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고 한다. 인간의 성은 몇세기에 걸쳐서 종교의 지배하에서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 기준으로 억압을 받아왔지만 1953년대 이후부터 동물학자이며 성 연구자인 Alfred Kinsey는 성을 과학적 연구대상 내지 건 강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해방은 국가의 권력이나 기성의 도덕기준에 억압되어 있던 인간성의 해방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학교나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상적인 성의 개념을 향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종으로 흘러간 면이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성가치관을 어떻게 길러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청소년 성교육의 경우, 교과서 내용이 너무 모범답안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교육내용 자체가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때 자존감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성폭력피해상담소, 1996; 부산여성사회교육원, 1997).

따라서 한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개방 의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행동 시기를 가능한 한 연기하여 임신을 예방하도록 지도, 교육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인 선

택이라고 사료되어 사춘기 초기라면 “성행동의 절제와 생식기 교육”을, 중기라면 “성행동 연기와 임신예방”을, 후기라면 “성행동 연기가 가져다 줄 이점이나 보상”을 강조해 주고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이 다루어져야 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P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교사중 연구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양호교사 119명과 일반교사 18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성역할 인지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한명희(1983)과 이순형(1983)의 “성차별주의 의식 도구”를 사용하여 1점-5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역할은 직무, 태도 및 능력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차별주의 의식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역할 인지도의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으며 양호교사군에서 .9215, 일반교사군에서는 .9354이었다.
- 2) 성교육 요구도는 일본 도쿄의 성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9개 주개념으로 형성된 성교육 교과과정안(기타자와 교코(北尺杏子), 1997)을 원용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1점-4점 등간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개별내용에 대한 교육적 요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성교육요구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으며 양호교사군에서 .9445, 일반교사군에서 .9418이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대상을 표집할 때 한국의 일반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적집단이 될수 있도록 P시를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권역별로 선정하였고 연구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P시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한후 1주일후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 PC+를 이용하여 인구사회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연구대상별 성역할 인지도와 성교육 요구도의 차이 검정은 t-test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분포에서 양호교사는 전체 119명이 모두 여교사였으며 일반교사의 경우에는 여교사 141명(77.0%)가 남교사 42명(23.0%)보다 많았다. 연령분포에서 양호교사는 40-44세군이 48.7%로 가장 많았고 평균나이 40.85세였으며 일반교사군은 30-39세가 59.6%로서 가장 많았고 평균나이 35.72세였다. 가족수는 양군 모두에서 4명이 47.9%와 48.6%로서 가장 많았고 평균 4.04명-4.02명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5.7%와 85.8%로서 대가족보다 많았다. 종교분포에서는 양호교사군에서는 불교신자(27.7%)가 가장 많았고 일반교사군에서는 무교(38.8%)가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에서도 양군모두 아파트거주가 63.0%와 68.3%로서 단독주택거주보다 많이 나타났다.

### 2. 양호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성역할 인지도

연구대상의 성역할 인지도를 묻는 총 문항중에서 첫째 직무영역(12개 문항)에 관한 성역할 인지도의 소계 평균을 보면, 양호교사가 2.41점으로서 일반교사 2.24점보다 높았으며(t=2.232, p=.026) 하위개념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자는 남에게 양보해야 한다”(t=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특성	구분	양호교사	일반교사
		(N=119) 실수(%)	(N=183) 실수(%)
성 별	남	-	42(23.0)
	여	119(100.0)	141(77.0)
연 령	24-29	22(18.5)	32(17.5)
	30-39	17(14.3)	109(59.6)
	40-49	58(48.7)	30(16.4)
	50이상	22(18.5)	12( 6.6)
	평균	40.85±9.27	35.72±7.67
가족수	평균	4.04±1.29	4.02±1.13
가족형태	핵가족	102(85.7)	157(85.8)
	대가족	17(14.3)	26(14.2)
종 교	없음	30(25.2)	71(38.8)
	불교	33(27.7)	48(26.2)
	기독교	27(22.7)	38(20.8)
	천주교	27(22.7)	23(12.6)
	기타	2( 1.7)	3( 1.6)
	주거형태	단독주택	39(32.8)
	아파트	75(63.0)	125(68.3)
	연립주택	5( 4.2)	18(9.8)

2.269, p=.024),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t=2.329, p=.021), “남성은 활동적인 일에,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t=4.090, p=.000), “직장에서 여성상관을 모시는 것보다 남성상관을 모시는 것이 더 좋다”(t=3.776, p=.000)였다. 둘째, 태도영역(14개 문항)에 관한 성역할인지도 소계 평균을 살펴보면, 양호교사가 2.28점으로서 일반교사 2.12점보다 높았으며(t=2.348, p=.020) 하위개념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자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t=3.348, p=.001), “여자는 남자보다 사교성이 좋다”(t=3.358, p=.001), “여성은 남성보다 성취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t=3.726, p=.000)였다. 셋째, 능력영역(14개 문항)에 관한 성역할인지도의 소계 평균은 양호교사가 2.26점으로서 일반교사 2.07점보다 높았으며(t=2.429, p=.016), 하위개념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t=-2.870, p=.004),

“남자와 여자는 능력상 평등하지 않다”(t=2.565, p=.011), “역사상 남자위인이 더 많은 것은 남자의 우위성 때문이다”(t=4.444, p=.000), “남자는 여자보다 분석적 사고능력이 더 높다(t=2.813, p=.005)”,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낮

다(t=2.988, p=.003)”, “여성은 단순한 반복적인 일을 잘하고 남성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잘한다”(t=2.858, p=.005), “일처리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다”(t=2.186, p=.030)였다.

〈표 2〉 연구대상의 성역할 인지도 차이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직무영역〉	2.41	.66	2.24	.69	2.232	.026*
“여자는 가정에서 충실한 것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3.15	1.25	3.08	1.33	.448	.654
“여자는 선천적으로 정치가나 과학자가 되는 것이 부적합하다”	1.62	.96	1.59	.93	.235	.815
“여아는 남아에게 양보해야 한다”	1.52	.83	1.32	.67	2.269	.024*
“기관장이나 행정직은 남자가 더 적합하다”	2.60	1.34	2.25	1.23	2.329	.021*
“사회적인 일은 남자가 하는 것이 더 낫다”	2.24	1.26	2.08	1.12	1.199	.232
“여자는 현모양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83	1.32	2.77	1.36	.352	.725
“남자는 사회적인 역할을 여자는 가정적인 역할을 책임져서 분담해야 한다”	2.13	1.09	2.15	1.19	-.198	.843
“가사일은 부인에게 맡기는 것이 남편의 권리이며 도량이다”	1.62	.90	1.63	.93	-.161	.872
“남성은 활동적인 일에, 여성은 정적인 일에 더 적합하다”	2.99	1.25	2.39	1.23	4.090	.000*
“직장에서 여성상관보다 남성상관을 모시는 것이 더 좋다”	3.22	1.24	2.66	1.26	3.776	.000*
“직장에서 책임있는 일은 남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다”	2.18	1.21	1.96	1.13	1.525	.128
“아기를 돌보는 일은 어머니의 의무이다”	2.89	1.37	2.89	1.39	.000	1.000
〈태도영역〉	2.28	.57	2.12	.58	2.348	.020*
“남자는 슬퍼도 남앞에서 울어서는 안된다”	2.13	1.26	2.21	1.28	-.522	.602
“남자는 여자보다 독립심과 자율성이 강하다”	2.87	1.31	2.84	1.28	.157	.875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이 더 풍부하다”	3.87	1.11	3.73	1.11	1.058	.291
“여자는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한다”	2.89	1.30	2.40	1.12	3.483	.001*
“여자는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생의 보람을 찾는다”	1.85	1.14	1.65	.98	1.600	.111
“여자는 남자보다 사교성이 강하다”	3.15	1.16	2.71	1.07	3.358	.001*
“여자는 유전의 영향을, 남자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1.97	1.08	1.99	1.08	-.177	.860
“여성은 남성보다 성취하려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	2.65	1.38	2.09	1.17	3.726	.000*
“남학생은 씩씩한 기상을 발휘해야 하고 여학생은 얌전해야 한다”	1.97	1.06	1.78	1.03	1.575	.116
“집안에서 남자는 큰소리를 내어도 좋으나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1.68	.84	1.62	.94	.591	.555

<표 2> 계속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여자는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겸양 지덕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1.85	1.06	1.74	.99	.876	.382
“모든 장소에서 남성에게 양보하는 것은 여성의 미덕이다”	1.58	.81	1.45	.78	1.281	.201
“여성교육의 제일 목표는 현모양처이어야 한다”	1.93	1.19	1.79	1.17	.970	.333
“남여공학보다 각 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남녀분리교육을 해야한다”	1.54	.91	1.67	.97	-1.149	.252
<능력영역>	2.26	.68	2.07	.65	2.429	.016*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	2.45	1.31	2.88	1.29	-2.870	.004*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능력면에서 앞서야 한다”	3.11	1.37	2.87	1.30	1.465	.144
“여자는 남자보다 능력면에서 좀 못해도 상관없다”	1.97	1.11	1.77	.94	1.636	.103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2.12	1.22	2.16	1.17	-.289	.773
“남자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월등하다”	1.82	1.07	1.60	.96	1.806	.072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이 더 적합하다”	1.95	1.11	1.85	1.04	.772	.441
“학교 회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부회장은 여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	1.61	.94	1.71	1.01	-.837	.403
“남자와 여자는 능력상 평등하지 않다”	2.40	1.36	2.02	1.19	2.565	.011*
“역사상 남자 위인이 더 많은 것은 남자의 우위성 때문이다”	2.66	1.47	1.97	1.21	4.444	.000*
“남자는 여자보다 분석적 사고능력이 더 높다”	2.85	1.33	2.42	1.23	2.813	.005*
“여자는 남자보다 자신감이 더 낮다”	2.35	1.23	1.94	1.10	2.988	.003*
“여성은 암기나 단순한 반복적 일을 더 잘하고 남성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일을 더 잘 한다”	2.40	1.34	1.99	1.15	2.858	.005*
“남학생과 여학생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목도 달라야 한다”	1.64	.85	1.76	1.02	-1.073	.284
“일처리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	2.31	1.26	2.00	1.16	2.186	.030*

\* p<.05

### 3. 연구대상의 성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교육 요구도

연구대상 교사들간의 학교성교육 요구도차이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일반교사의 점수가 양호교사보다 높았던 것은 “양성평등”(3.45점>3.34점, t=-1.188, p=.236), “인권교육”

(3.58점>3.50점, t=-1.081, p=.280), “결혼관”(3.40점>3.28점, t=-1.342, p=.181)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반대로 양호교사의 점수가 일반교사의 점수보다 높았던 것은 “사회와 성”(2.97점>2.89점, t=1.125, p=.262)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개별문항중 성폭력(3.67점>3.49점, t=2.370, p=.016), 담배,

알콜 및 마약(3.45점 > 3.26점,  $t=2.000$ ,  $p=.046$ )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유의한 점수 차를 보였다. 그리고 성교육 내용중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개념은 “사랑”으로서 양호교사 3.55점, 일반교사 3.56점이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t=-.038$ ,  $p=.970$ ). “사생관”은 양호교사 3.05점, 일반교사 2.97점으로서 양군 모두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 $t=1.134$ ,  $p=.258$ ). 개별항목중 ‘어떻게 살 것인가, 소중한 생명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았지만 ‘성감별’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 “생식교육”에 대한 평균점수는 양호교사 3.16점, 일반교사 3.07점으로 교사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수정’과 같은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양호교사군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생리교육”의 평균 점수는 양호교사

3.20점, 일반교사 2.92점으로서 양호교사가 일반교사들 보다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t=3.599$ ,  $p=.000$ ) 하부개념중 ‘2차 성징과 남녀의 차’( $t=2.531$ ,  $p=.012$ ), 초경과 사춘기( $t=2.836$ ,  $p=.005$ ), 몽정( $t=3.914$ ,  $p=.000$ ), 사정( $t=3.137$ ,  $p=.002$ ), 월경( $t=2.746$ ,  $p=.000$ )에서도 양호교사의 점수가 훨씬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폐경에 대해서는 양군 모두 2.78점, 2.59점으로서 매우 낮은 요구도를 나타내었다. “치치교육”의 평균점수는 양호교사군 3.27, 일반교사군 3.15로서 집단간 차이는 없었지만 ‘월경처리법, 자위행위, 몸의 청결’에 대한 개별항목에서는 양호교사군이 높은 요구를 했으며 피임방법에 대해서는 일반교사군에서 많이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연구대상의 성교육 요구도 차이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양성평등〉	3.34	.78	3.45	.77	-1.188	.236
〈인권교육〉	3.50	.75	3.58	.65	-1.081	.280
〈결혼관〉	3.28	.85	3.40	.71	-1.342	.181
〈사회와 성〉	2.97	.60	2.89	.55	1.125	.262
성폭력문제	3.67	.57	3.49	.66	2.370	.018*
성의 상품화	3.13	.96	3.15	.86	-.174	.862
포르노의 허구성	2.78	.92	2.67	.96	.982	.327
담배, 알콜, 마약	3.45	.75	3.26	.82	2.000	.046*
매매춘	2.92	.93	2.98	.90	-.627	.531
성희롱	3.06	.85	3.00	.87	.661	.509
동성애	2.65	1.00	2.61	.91	.264	.792
장애인의 성	2.55	.98	2.52	.86	.329	.742
우생학과 성	2.58	.99	2.49	.92	.735	.463
부부의 성, 가족관	3.39	.85	3.32	.74	.691	.490
성과 연령차이	2.47	.98	2.29	.93	1.566	.118
〈사랑〉	3.55	.63	3.56	.61	-.038	.970
〈생사관〉	3.05	.60	2.97	.61	1.134	.258
어떻게 살 것인가	3.35	.79	3.55	.70	-2.332	.020
소중한 생명	3.55	.67	3.59	.67	-.514	.607
성감별	1.99	1.15	2.07	1.07	-.608	.544
건강한 삶	3.56	.69	3.44	.78	1.365	.173



〈표 3〉 계속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생식교육〉	3.16	.67	3.07	.62	1.193	.234
입신	3.49	.65	3.48	.63	.141	.888
성교	3.02	.82	3.07	.78	-.545	.586
불임과 생식기술	2.92	.92	2.81	.85	.981	.327
수정	3.10	.84	2.87	.85	2.403	.017*
출산	3.28	.79	3.09	.81	1.889	.060
〈생리교육〉	3.20	.62	2.92	.68	3.599	.000*
2차성징 남녀의 차	3.44	.61	3.22	.76	2.531	.012*
초경과 사춘기	3.45	.70	3.19	.79	2.836	.005*
폐경	2.78	.85	2.59	.87	1.878	.061
몽정	3.13	.78	2.76	.81	3.914	.000*
사정	3.07	.82	2.77	.82	3.137	.002*
월경	3.31	.69	2.97	.80	3.746	.000*
〈처치교육〉	3.27	.59	3.15	.61	1.706	.089
피임방법	3.22	.84	3.40	.76	-1.914	.057
월경처리	3.46	.72	3.19	.79	3.053	.002*
콘돔사용법	3.00	.88	2.87	.93	1.169	.243
자위행위	3.04	.76	2.72	.84	3.339	.001*
몸의청결	3.54	.68	3.24	.83	3.233	.001*
AIDS예방과 치료	3.25	.82	3.24	.86	.172	.864
낙태와 임신중절	3.40	.84	3.40	.80	-.041	.967

\* p<.05

#### 4. 연구대상간의 성교육, 성폭력 및 자위행위에 관한 의식

연구대상 양호교사와 일반교사들이 성교육 전방에 관한 일반상식, 편견과 성폭력이나 음란물과 관련된 개인적 신화(Myth), 자위행위 및 성의식에 관한 조사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성교육에 관한 일반상식”을 묻는 6개 문항중 “남학생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t=2.501, p=.013), “아동의 성교육은 발달 단계보다 한발 앞서 시작해야 한다”(t=2.181, p=.030), “인종차별 의식을 없애는 것도 성교육의 목표다”(t=2.462, p=.014) 문항에서는 양호교사군이 일반교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양호교사의 성교육의식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청소년의 바람

직한 성문화는 의도적, 체계적인 성교육에 의해 정립될 수 있다(4.33점과 4.14점)”, “성폭력·성희롱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4.63점과 4.56점)”, “청소년의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 주변의 퇴폐향락업소 때문이다(4.03점과 3.80점)”의 문항에서는 양군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교육에 대한 편견(＃)”을 묻는 3개 문항중 “솔직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을 오염시킨다”(t=-3.406, p=.001)에서 일반교사군이 양호교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일반교사의 성교육 편견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성교육은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1.85점과 2.06점), “성교육의 목적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가르치는 것이다”(2.68점과 2.60점)에서는 양군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성폭력, 음란물 관련신화 및 처벌”에 관한 6개 문항중에서 “성폭력 가해자측에는 정상인은 없다”(2.60점>2.03점,  $t = -3.953$ ,  $p = .000$ ), “내자녀(배우자)는 성폭력과 상관없다”(2.91점>2.60점,  $t = -2.026$ ,  $p = .044$ ), “내자녀(부모)는 포르노 잡지나 음란물 VTR을 보지 않는다”(2.59점>2.14점,  $t = -3.380$ ,  $p = .001$ ), “학생이 포르노잡지나 음란물을 접하다가 발각되었을때는 처벌해야 한다”(2.68점>2.28점,  $t = -3.184$ ,  $p = .002$ ) 문항에서 일반교사의 점수가 양호교사보다 높게 나타나 일반교사의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더 엄격하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배꼽티나 핫팬티를 입고 다니는 여자는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해도 할말 없다”(2.49점, 2.27점), “망년회나 회식모임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2.66점, 2.68점) 문항에서는 양군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자위행위 및 기타 성의식”에 관한 7개

문항중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1.92점>1.47점,  $t = -5.237$ ,  $p = .000$ ), “성에 관한 얘기는 가급적 남에게 하지 않는다”(2.29점>1.98점,  $t = -2.411$ ,  $p = .017$ ), “가족(자녀)과 함께 TV를 보다가 키스장면이 나오면 눈치를 보거나 당황한다”(2.74점>2.23점,  $t = -3.597$ ,  $p = .000$ )에서 일반교사의 점수가 양호교사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일반교사의 성의식이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얼버무리는 것은 성교육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문항에서 3.31점과 3.45점으로 양군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양호교사와 일반교사 양군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성(性)하면 웬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2.42점, 2.54점)와 “남아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은 여아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보다 덜 부끄럽다”(2.62점, 2.46점)였으며 특히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남편이 출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1.65점, 1.78점)로 나타났다.

〈표 4〉 연구대상의 성교육상식,성폭력 및 자위행위에 관한 의식 차이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교육상식 및 편견〉						
“남학생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18	.87	3.91	.95	2.501	.013*
“아동의 성교육은 신체발달 단계보다 한발 앞서 시작해야 한다”	3.81	1.30	3.50	1.09	2.181	.030*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문화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에 의해 정립될 수 있다”	4.33	.82	4.14	.96	1.779	.076
“성폭력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4.63	.91	4.56	.99	.594	.553
“인종차별 의식을 없애는 것도 성교육의 목표다”	4.02	1.07	3.72	1.01	2.462	.014*
“오늘날, 청소년의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주변의 퇴폐향락업소 때문이다”	4.03	.95	3.80	1.08	1.935	.054
“성교육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이 해야 한다”( # )	1.85	1.13	2.06	1.22	-1.503	.134
“성교육의 목적은 남아는 남자답게, 여아는 여자답게 가르치는 것이다”( # )	2.68	1.52	2.60	1.33	.512	.609
“솔직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을 오염시킨다”( # )	1.95	1.08	2.39	1.11	-3.406	.001*

〈표 4〉 계속

내 용	양호교사		일반교사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폭력, 음란물 관련 신화 및 처벌〉						
“성폭력 가해자 속에는 정상인은 없다”	2.03	1.16	2.60	1.25	-3.953	.000*
“내 자녀(배우자)는 성폭력과 상관없다”	2.60	1.34	2.91	1.26	-2.026	.044*
“내 자녀(배우자)는 포르노 잡지나 음란물을 담은 VTR을 보지 않는다”	2.14	1.12	2.59	1.12	-3.380	.001*
“망년회나 회식모임에서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	2.66	1.23	2.68	1.13	-.099	.921
“배꼽티나 핫팬티를 입고 다니는 여자는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해도 할말 없다”	2.49	1.31	2.27	1.19	1.497	.135
“학생이 포르노 잡지나 음란물을 접하다가 발각 되었을 때는 처벌해야 한다”	2.28	1.03	2.68	1.08	-3.184	.002*
〈자위행위 및 기타 성의식〉						
“청소년의 자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1.47	.57	1.92	.83	-5.237	.000*
“성(性)하면 웬지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2.42	1.24	2.54	1.19	-.881	.379
“성(性)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남에게 하지 않는다”	1.98	1.08	2.29	1.10	-2.411	.017*
“남편이 출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다”	1.65	1.07	1.78	1.01	-1.094	.275
“남아가 하의를 벗고 있는 것은 여아가 벗고 있는 것보다 덜 부끄럽다”	2.62	1.39	2.46	1.31	.993	.322
“가족(자녀)과 함께 TV를 보다가 키스장면이 나오면 눈치를 보거나 당황한다”	2.23	1.16	2.74	1.23	-3.597	.000*
“성(性)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얼버무리는 것은 성교육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3.31	1.40	3.45	1.18	-.949	.343

\* p<.05

5. 학교 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제안

학교 성교육의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책임자라고 생각되는 선생님을 한분만 표하게 한 결과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호교사의 77.3%(92명)에서 ‘양호교사’ 자신들이 가장 책임자라고 응답했고 두번째로 ‘간호대학 출신의 보건교사’를 응답하였으며(11.8%, 14명), 세번째는 공동참여(team teaching) 의견을 8.4%(10명)에서 제시하였다. 일반교사들의 경우에도 ‘양호교사’(36.1%, 66명)를 가장 책임자라고 응답하였고 두번째로는, ‘사범대학출신의 보건교사’(33.3%, 61명)를 책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세번째로는 공동참여를 원했고 ‘간호대학출신의 보건교사’(12.6%, 23명)를

희망한 대상자는 전체의 23명(12.6%)에 지나지 않았다.

〈표 5〉 연구대상의 ‘학교성교육 책임자’에 대한 의견

내용	구 분	양호교사	일반교사
		(N=119) 실수(%)	(N=183) 실수(%)
성교육 책임자	*양호교사	92(77.3)	66(36.1)
	교련교사	1( 0.8)	0(0)
	체육교사	0(0)	3( 1.6)
	보건교사 (간호대학출신)	14(11.8)	23(12.6)
	보건교사 (사범대학출신)	2( 1.7)	61(33.3)
	공동참여	10( 8.4)	30(16.4)

## V. 논 의

우리 나라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교육을 제공해야 할 교사들이 성역할에 대한 양성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우리 나라의 중등학교 교사들의 성역할인지를 양호교사와 비교해 본 바에 의하면 양호교사가 일반교사들보다 남성 우위적, 성차별적 태도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 많고 가부장적 성차별주의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양호교사의 성역할인지도가 보수성을 띤 것은 양호교사의 평균연령이 일반교사의 연령보다 높았던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미국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는 의사, 대학교수가 되고 여자는 비서,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믿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차이는 천의 능력이나 선천적인 흥미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며 심지어 여성변호사, 여성과학자들조차도 동일직종의 남자가 받는 보수의 73%밖에 받지 못한다는 보고를 볼 때 미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Association Press, 1979). 그러나 Gerald R. Adams & Thomas Gullotta(1983)은 양성적 젊은이들 특히 양성적인 소녀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이나 조건에 보다 잘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데 비하여 남성성이 높은 남자들은 노이로제나 불안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1997)에 의하면 인간이 완벽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남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한쪽으로 치우친 성역할을 인식하거나 완고한 성역할에 사로잡혀 있다면 일상생활에서 억압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래서 양성적인 사람만이 다양한 생활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부산 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위원회, 1997)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성역할 인식을 목표

로 하는 양성주의적 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전통적, 가부장적 남성다움의 허영과 고집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광범위한 인간관계와 생활경험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교육 제공자(교사)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예를 들어 양호교사 혹은 일반교사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성교육 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역할 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사춘기 및 청소년들의 성교육 교과내용이 8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서 지금 현재의 청소년들에게도 적합한지 아니면 발달수준에 알맞게 수정보완을 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성교육 교과내용에 대한 교육제공자 입장에서 교육요구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교육의 주개념인 “사랑”, “인권교육”, “결혼관”, “양성평등”과 같은 항목에서 양군 모두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었지만 “사회와 성”, “생사관”에서는 요구도가 낮았다. 특히 ‘매매춘, 동성애, 장애인의 성, 우생학과 성, 성과 연령차이, 성감별, 불임과 생식기술, 폐경’과 같은 하부개념 항목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의 성교육 의식, 성폭력 및 자위행위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서 일반교사의 경우, “성교육은 여학생에게 더 많이 시켜야 한다”, “솔직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을 오염시킨다”는 편견이 강했음에 비해 양호교사는 “성교육의 목적으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종차별 의식을 없애는 것도 성교육의 목표라고 응답한 양호교사 및 일반교사들이 많았으며 무엇보다도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으로서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데에 양군 모두 4.63점, 4.56점을 나타내어 성폭력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청소년의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

는 것은 학교 주변의 퇴폐 향락 업소 때문이다”(4.03점, 3.80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건전한 성문화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8년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한 “성과 행복”이라는 책자를 본 일 중학생에 의하면 “다 알고 재미없는 사실”이라고 일축한 반면에 학교 관계자들은 성교육 정보제공이 “괜히 조용히 있는 학생들을 자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교사-학생간의 시각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주간조선, 1998. 8. 27). 이는 양호교사와 일반교사들의 성교육 전반에 관한 신화, 편견 및 오해를 하고 있음을 확인해준 자료였다. 특히 자위행위와 같은 성행동에 대한 편견이 일반교사에게 더 높았는데 이러한 편견이나 오해의 부문들은 청소년층에 서서 이해하지 않으면 성교육의 목표에도 달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일반적으로 자위행위(masturbation)에 의한 성적 흥분은 5세이상이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고 어느 나라에도 있었던 인간의 경험으로서 금욕 주의자의 믿음과는 반대로 자주 실행한다 할지라도 신체에는 해가 없으며 오히려 혼자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남을 상하게 하지 않고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유익하다고 보는 학자들은 자위행위를 정상행동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자들의 자위행위는 대개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 9-18세대에 시작하여 20세까지 남자의 92%, 여자의 40%가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성폭력피해상담소, 1996:1997). 그러나 부모나 성교육 제공자가 “자위행위는 더러운 것이며 해로운 것이라”고 야단을 하거나 원망을 하게 된다면 아동은 평생동안 그것을 기억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문제는 자위행위를 죄악시 하거나 막지 말고 청결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네째, 학교 성교육 제공자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양호교사나 일반교사 모두 학교성교육의 책임자를 양호교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 부산 성폭력상담소의 일 자료(1996)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1.5%였는데 누구로

부터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가정, 생물, 체육, 도덕 및 사회교과목 교사로부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양호교사 35.6%, 담임교사 9.8%, 초빙강사 6.1%, 상담실교사 3.0% 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자는 양호교사를 학교 성교육 제공자로 추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양호교사가 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립된 보건교육 교과목을 가지고 정규 수업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두번째는 성교육 교사로서 자신의 성역할 정체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학생들에게 자신감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아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져서 교사의 개별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8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P 시내 양호 및 일반교사 302명을 대상으로 남녀성역할에 대한 인지도와 성교육요구도를 확인하고 성교육실시와 관련된 의식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성교육 제공자의 교육적수준을 확인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적합한 청소년 성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양호교사의 일반교사간의 성역할인지도 : 직무면의 성역할인지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양호교사가 2.41점으로서 일반교사의 2.24점보다 높았으며( $t=2.232, p=.026$ ), 태도면의 성역할인지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양호교사가 2.28점으로서 일반교사의 2.12점보다 높았고( $t=2.348, p=.020$ ), 능력면의 성역할인지도 문항의 평균점수는 양호교사가 2.26점으로서 일반교사의 2.07점보다 높게 나타나( $t=2.429, p=.016$ ) 양호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직무, 능력 및 태도면에 있어서 남성우위적 성차별주의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2) 양호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성교육요구도 : 연구대상 양호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학교성교육 요구도가 높았던 항목은 9개 개념중 “사회

와 성”의 ‘성폭력, 담배·알콜·마약문제’와 “생식교육”의 ‘수정’, “생리교육”의 ‘2차성징과 남녀위 차, 몽정, 사정, 월경’ 및 “처치교육”의 ‘월경처리, 자위행위, 몸의 청결’이었다. 한편, 연구대상간의 요구도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지만 성교육요구도가 높았던 개념으로는 “사랑”, “인권교육”, “양성평등” 및 “결혼관” 이었고 교육적 요구도가 낮았던 개념은 “사회와 성”, “생사관” 및 “생리교육”이었다. 특히 ‘매매춘’, ‘동성애’, ‘장애인의 성’, ‘우생학과 성’, ‘성과 연령차이’, ‘성감별’, ‘불임과 생식기술’, ‘폐경’과 같은 하부개념의 항목에 대해서는 요구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 3) 양호교사와 일반교사간의 성교육 의식수준 : 연구대상의 성교육에 대한 상식 및 편견문항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을 오염시킨다”는 일반교사가 많았던 반면에 “인종차별 의식을 없애는 것도 성교육의 목표”라고 응답한 양호교사가 더 많았으며 그 외에도 “남학생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종차별 의식을 없애는 것도 성교육의 목표다” 문항에서 양호교사군이 일반교사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양호교사와 일반교사 모두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으로서 바람직한 청소년 성문화를 이룰 수 있다”, “성폭력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오늘날, 청소년의 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 주변의 퇴폐향락업소 때문이다”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높은 성교육상식을 확인하였다. 성폭력, 음란물 관련신화 및 처벌에 관한 문항 6개 중에서 일반교사의 점수가 양호교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성폭력 가해자 속에는 정상인은 없다”, “내자녀(부모)는 성폭력과 상관이 없다”, “내자녀(부모)는 포르노 잡지나 음란물 VTR을 보지 않는다”, “학생이 포르노 잡지나 음란물을 접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처벌해야 한다”였다. 따라서 일반교사의 음란물에 대한 태도가 양호교사보다 더 엄격하고 학생들을 처벌할 것을 원했으며 “나의 가족은 성폭력이나 포르노와 상관없다”

는 신화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위행위 및 기타 성의식 8개 문항중에서 일반교사의 점수가 양호교사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자위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가족(자녀)과 함께 TV를 보다가 키스장면이 나오면 눈치를 살피고 당황한다”였다. 따라서 자위행위 성의식에서도 일반교사가 더 보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 4) 학교성교육 적임자에 대한 제안 : 학교 성교육의 적임자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사를 선택하게 한 결과, 양호교사의 77.3%와 일반교사의 36.1%에서 ‘양호교사’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학교 성교육의 제공자인 교사들의 성역할 인지도 및 성교육 요구도를 성문화가 다른 권역별 혹은 국가별로 비교 검토해보는 현상학적 혹은 문화기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성교육 교사들의 왜곡된 성역할 인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성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구성애 (1998). IMF시대의 성교육. 부산매일 제 2905호, 98. 7. 10(금).

권이중 (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기환 (1998). “청소년의 성행위 :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과 성문제-, 제9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대회, 15-39.

문연자 (1986). 매스미디어의 성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란 (1980). 서울시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성폭력상담소 (1996). 개소 1주년 기념자료집, -상담통계 및 상담자료 분석(95.5-96.4), 17-27.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성교육위원회 (1997). 성 바로 알기. 서울: 의암출판사, 140-141.

- 성폭력피해상담소 (1996). 편견없는 성교육 (Ⅱ), 62-68.
- 손덕수 (1997). “향락산업과 매매춘, 이대로 좋은가?”. 현대사회와 성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 신세호외 3인 (1987). 한국인의 남성 및 여성 역할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자 (1996). “현대사회와 청소년”-성교육. 서울: 현문사, 9-26.
- 이동원 (1974). 여성의 가외활동에 대한 남녀대 학생의 태도 조사. 서울: 이대문리대 부설 여성자원개발연구소.
- 이명화 (1997). “청소년의 성과 성윤리”. 현대사회와 성윤리. 제8회 사회윤리심포지움.
- 이순형 (1983). 고교생의 남녀 역할관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하 (1982). 아동문학에 나타난 남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철형 (1998). “청소년 성행위에 대한 고찰”. 아동과 성문제, 제9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대회.
- 이효재 (1978). 여성사회의식. 서울: 평민사.
- 전용호 (1996). 정신지체아와 성. 서울: 파란나라.
- 주간조선 (1998). 10대의 성, 46-47, 1998. 8. 27.
- 최수일 (1996). “대중매체가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재청, 류태형, 김병기, 노영복, 이경희 (1997). 성의 과학. 서울: 아카데미서적, 147-8.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3). 102-103.
- 한국교육개발원편 (1977).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명희 (1983). 초등학교 어린이의 성역할 의식과 교육의 과제. 동국대논문집 22편, 서울: 동국대학교.
- 北尺杏子-기타자와 교코 (1997). 편견없는 성교육 I, II. 성폭력피해상담소.
- Alvarez, M. et. al. (1990). Sex Inform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ex. Rev. Clil. Pediatr., 61(2), 102-108.
- Creatsas, G. et. al. (1991). Teenagers Pregnancy. Jour. Adolescent Health, 12(2), 77-81.
- Felizari, G. M. (1990). School nursing and sex education for adolescents. Rev. Gaucha. Enferm. Jul, 11(2), 12-9.
- Gerald R. Adams & Thomas Gullotta (1983). Adolescent Life Experiences. Brooks Cole Pub. Co., Monterey California, 211-229.
- Gruen, S. M. et. al. (1991). Setting Up a School-based Sexual Education Program. Nurse Pract., 16(8), 47-51.
- Hajcak, F. ; Garwood, P. (1988). Quick-fix Sex : pseudosexuality in adolescents. Adolescence, Winter, 23(92), 755-60.
- Hernann, B. ; Egger M. ; Low, N. et. al. (1995). Sexual education for Adolescents. The Lancet, 345(8953), 860.
- Roberts Smith S. ; Allen D. F. ; Jekel J. F. (1984). Teenager pregnancy in the Bahamas :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le. J. Biol. med. May-Jun., 57(3), 273-81.
- Shen, J. T. (1982). Adolescent Sexual Behavior. Postgrad. Med. Apr, 71(4), 46-8, 54-5.
- Wall-Haas, C. L. (1991). Nurses' Attitudes Toward Sexuality in Adolescent Patients. Pediatric Nursing, 17(6), 549-554.

– Abstract –

Key concept :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  
the demand of sexual edu-  
cation

## The Study of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the Demand of Sexual Education and the Consciousness of Sexual Education in the Korean teachers \*

*Kim, Young Hae\*\**

The study was attempted and executed to re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eriod was May 1st through June 15th, 1998 and the subjects were 302 teachers consisting of School Nurses and general teachers in Pusan city.

1) The degrees of recognition of sexual roles by the subjects were compared as follows : The average point as to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in the occupational functions by the school nurses was 2.41,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teachers. The average points as to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in the attitudes by the school nurses was 2.28,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teachers. The average points as to the recognition

of sexual roles in the abilitis was 2.26,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teachers. These ascertain that school nurses recognize the man has higher superities in the occupational functions, the attitudes and the abilities than the woman.

- 2) The degrees of demand of sexual education by the subjects were compared as follows : As to the degrees of demand of sexual education, the school nurses showed higher demand than the general teachers in the concepts such as “the society and sexualities, physiology and actual education”.
- 3) The levels of the consciousness of sexual education by the subjects were compared as follows : the general teachers showed the more strict attitudes than the school nurses against the lascivious sex objects and wanted the punishment against the related students and the general teachers have myth. They claimed that their family have no relation with the sexual violence or pornography. As to the masturbation, the general teachers showed the more conservative attitudes.
- 4) The opinions by the subjects as to the well-qualified person in charge of sexual education in school were compared as follows : 77.3% of the school nurses, and 36.1% of the general teachers supported the school nurses.

---

\* The author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7.

\*\*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